

이렇게 들었다

교육개혁

“교사 자질-대우 향상”

“그물을 잡을 때, 먼저 그 버리(綱)를 거두어야만 그물코가 다 바르게 되는 것이다. 버리를 거둘 줄 모른 채 그물코만 먼저 바르게 하려다가는, 뒤죽박죽 서로 뒤엉켜버려 풀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러고는 마침내 자기생각이 옳다고 고집하여 노여움을 일으켜, 근본을 잃고 도리를 잃은 채, 바른 것을 험담하고 그릇됨을 좇는 바, 여기에 그 제자들까지 각기 뇌동하여 산술업이 소리를 좇듯 가세하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바로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고 만다.” <오교장규경>

부처님께서 교육과 방법에 대해 당부한 말씀이다. 이는 어떠한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일을 풀어나가야, 조건은 갖춰지지 않는 채 좋은 결과만 바라는 인간의 욕심을 경계한 것이다.

최근 이돈희 교육부장관이 “학교가 학원과 경쟁해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학원교사들은 연구·교수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교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무능한 교사는 떠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에선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교사의 지위와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며 “학부모와 교사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교육정책 실패의 짐을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장관이 학교와 학원 그리고 학원강사와 교사간 능력 차이를 비교한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다. 교사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해 근본적인 실패 원인과 교육의 이념이 다른 학원과 학교를 비교하면서 교사를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개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처님은 <대아미타경>에서 “거친 말을 멀리함으로써, 나를 해치고 남을 해쳐 서로가 함께 해 입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무능력 교사 퇴출”이라는 장관의 말에 발끈하기보다는 교직사회 위상제고를 위해 오히려 스스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높다.

교사의 자질문제에 대해 교사들은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끝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교사의 자질과 관련한 문제의 근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현장의 문제는 그 근본원인이 현실적인 교사와 물의를 일으킨 교사가 차별 없이 정년보장을 받고,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시스템에도 있다. 그것 때문에 교직사회 전체가 경색되는 무기력한 조직으로 바뀐 측면도 있다는 얘기가.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교육행정당국이 교육자들과 동반자적 인식 하에 올바른 교육개혁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원단체도 교육당국과 함께 경쟁체제를 제도화하고 교사의 자질향상과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할 때다.

김원우 기자

유전자 조작, 식량대란 초래할수도

불자세상보기

1960년대 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다수확 품종 개발로 물을 덜었다. 제초제·삼중제·화학비료, 관개와 기계화로 담보되는 녹색혁명, 적은 노동력으로 경작이 가능한 녹색혁명은 애초 예상했던 수확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 녹색혁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고 말았다. 크고 작은 담과 관개수로로 아지각이한 지역 생태계와 경관을, 농약과 화학비료는 땅의 생산력과 농민의 건강을, 콤바인은 노동집약적 농촌공동체를 일깨 만들었지만, 녹색혁명으로 잃은 것 중 중요한 하나는 종자의 다양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후 풍토에 맞는 다양한 곡

식과 채소를 심어 오랜 세월 자급자족 했던 농촌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한두 가지 작물로 획일화됐다.

녹색혁명은 사업 초기 많은 증산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 식량생산은 전 같지 않다. 레이첼 카슨이 농약의 위험성을 경고한 지 30년 만에 농약 사용량이 수십만 배 증가했건만 1990년대를 고비로 증산은 커녕 감산의 고개를 넘고 있다. 녹색혁명은 실패한 것이다. 시행 초 늘어난 식량은 세계인구를 크게 늘여 녹색혁명 초기의 두 배인 60억 명을 초과하고 있지만 그들 중 8억 명은 만성기아에 허덕이고 해마다 3000만 명이 굶주려 죽는다. 대략 11초에 한 명 꼴이다. 인류의 굶주림을 몰아내겠다는

40년전 녹색혁명

오히려 종자 획일화

잡은 기상이변

농산물 생산 약화

녹색혁명, 그렇게 증산된 곡물은 가난한 이들에게 무상 공급되기도 돈 많은 이들의 식탁을 세련되게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곡물의 상당량을 가축사료용으로 전용한 것이다.

최근 한 신문은 우리나라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정부에서 100% 안 심해도 좋다고 밝혔지만, 몬산토라는

다국적 기업에서 조작한 유전자가 미국 산 수입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두부 제조 공을 몰래 빼들려 심었던, 종자회사의 은밀한 거래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의 종자 관리 의식이 천박한 수준이라는 점이 큰 문제이지만 지역적 단락을 몰고 왔던 녹색혁명을 크게 압도하여 생명공학이 이제 세계적 단락의 시대를 불러올까 두렵다. 전 세계가 몬산토의 유전자 조작 종만 심고,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만 먹어야 한다면, 세계인의 식성과 민심까지 몬산토의 논치를 살피게 되지 않을까 겁이 난다.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약속된 소득을 보장하는 단락은 재배 환경에 따라 기록이 심하다. 환경이 맞을 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해주지만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종자 값도 건



박병상 생명·윤리연대 사무국장

생명공학을 강하게 비판하는 인도의 반다나 슈바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세계적 단락 때문에 뿌리깊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일거에 단순해지고, 지역 정체성이 폐기될 것을 염려한다. 문제는 정작 감당하기 어려운 식량대란이 아닐까 생각한다. 몇 종류 안되는 유전자 조작 종자에 맞게 획일적으로 바뀌 버린 세계 농촌에 기상이변이 몰아친다면? 기상이변과 환경변화는 점점 더 예측을 불허하고 있는데,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세계를 파고든다. 큰 일 치르기에 제철 제고장 농산물로 막아야 한다.

지지 못할지 모른다. 따라서 유전자가 조작된 농산물을 심으면 전통 재배방식은 자동 폐기되고 종자회사에서 제공하는 영농기술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없다.

열린마당

종교 권력화

“종교적 권위와 위계 필요조건”

만초스님 <조계종 총무원기획국장>

우리나라 종교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해방이후 자본주의에 몰려 세속화되면서 경제적인 부(富)나 명예(名譽)가 우선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국민들의 정신적인 안식처이자 깨달음을 향한 구원의 장이 돈벌이의 수단처럼 치부되는 현실은 종교인 스스로가 대오각성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만 보자면 한이 없을 것이며, 또 그것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 불교는 해방 이후 상당한 진전을 거듭했다. 일본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포교와 역경, 교육 등 불교의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부족하지만 사회적으로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운동 그리고 인권에 이르기까지 만인을 위한 깨달음의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 조계종만 하더라도 해마다 안거절이면 2, 3천명의 스님들이 치열한 수행정진에 몰입하고, 전국 2500여개의 사찰에서 신도들은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봉사와 신행에 정진한다. 문화재와 자연을 한몸처럼 보전하는 일에도 게으름이 없다. 혼자서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디지만 여럿이 가는 것이 종교의 발전이다.

종교마저 썩었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희망을 얻을 곳은 없다. 어쩌면 종교인들도 썩었는데 우리가 조금 부정을 한다고 해서 큰일이 있을까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일을 가하는 것이 염려된다.

종교의 개혁은 철저한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종교내에 구성된 종교적 권위와 위계에 의해 정화되고 다듬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교단 구성원의 일부나 일각에서의 사고가 마치 교단 전체의 일인양 인식되고 확대되는 것은 응당하지 않다.



만초스님

“교단 청정-정재 투명운영 필요”

김희욱 <재가연대 협동집행위원장>

종교권력의 일그러진 모습이 마침내 언론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부패가 은폐된 권력과, 허위의 성에 갈려있는 권위주의의 해체과정을 강하게 촉박시키는 것이 시민사회의 성장이다. 시민사회 참여민주주의의 성장은 모든 부당한 권력과 허위적 권위를 해체해 가고 있다.

불교교단을 보자. 종단사태나 문중간의 권력다툼은 수행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어디 이뿐인가. 정치지도자는 이유 있는 개혁취재기재로 옷을 벗는데 종교지도자는 삼승도박으로도 교단 행정 서열 3위를 버티기 유지하고 있다. 주로 국민의 혈세인 각종 정부보조금과 조상이 물려준 공동의 유산으로 실패실패를 하면서 그 실패실패의 투명성이나 생산성, 절약성은 추호도 인중에 두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재관리로나 사찰재정의 불투명한 운영이 그렇다.

또한 어떻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무슨 까닭인가 줄 곧 탐구하면서 제 지내고 복 비는 일에 동참하라는 말에는 열을 올리는 일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불교의 자화상은 시민사회일반의 수준에도 미달되는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로써 대부분은 해체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 면에서 ‘한겨레 21’ ‘주간동아’ 등 시사주간지와 일반 언론이 종교권력문제를 손을 댄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앞으로 상당기간 그런 기류가 형성될 것이고, 종교계 내부의 부패와 몰상식, 불의는 시민사회라는 가장 강한 햇빛에 의해 옷이 벗겨질 것이다. 이제 감추어진 것은 드러날 것이다.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희욱

기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고 받을때 기분이 싱그럽다



이우상 (소설가)

원로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최근 <아주 오래된 농담>이란 책을 냈다. 작가의 나이 일흔,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경지이다. 그래서 붙인 제목인 것 같다. 내용은 분명 농담이 아니다. 작가 특유의 감칠맛과 긴장미를 견고하게 내재하고 있다. 소설이란 작가의 위안을 제공하는 그런 그런 것이 아니겠소라는 겸양의 말로 들린다. 이런 유의의 농담이라면 넘쳐도 상관없을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하나씩 들고 나온다. 허공에 벌은 침은 자신에게 돌아오고,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뿌리면 도리어 자기가 뒤집어쓴다. 경전에서 경고하는 구절들이다. 구입(口業)을 경고하는 구절은 경전의 도처에 있다. 그러나 제어하기 힘든 인간의 본성인지 남에 대한 비방과 헐뜯음에 묘한 쾌감마저 느껴진다. 새천년의 진정한 시작인 올 새해 벽두부터 특히 정치권은 아는 것이 악담밖에 없는 듯이 살벌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인사말에는 정말 어떤 장식도 계산도 없다. 말이란 으레 상징이나 비유나 함축이나 하는 번잡한 장치가 있기 마련인데, 새해맞이 인사말은 엇그제 내린 폭설의 속살처럼 순백의 상태이다. 그런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면 기분이 싱그럽다. 일년 내내 지내고 싶은 평정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 남을 해하는 것보다는 기쁨을 나누는 것에 익숙한 것이 우리네 심성이다.

아무리 파내도 졸지 않는 바다처럼, 덕담의 바다가 출렁거리는 세상, 새해의 모습은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끔은 겸양과 해학을 갖춘 농담이 주책없이 끼어 들어도 좋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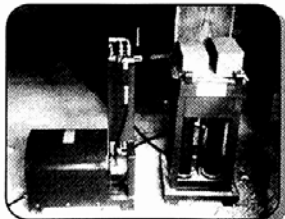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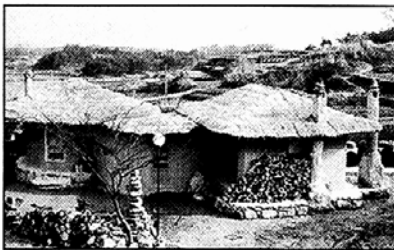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만난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는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부지런히 복을 쌓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항토마을

황토마을에서는

- ① 황토 주택 토굴시공
- ② 토굴 현장 출장감독
- ③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항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시여태원 거룡 범주스님의

신식 감정콩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향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변보다 더 쓰러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과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려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감정콩의 이름이다. 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약즙에 감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약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감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 소요된다. 콩은 ‘속퍼레이프’이라 부르기도 하는 세리데움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한다.

“신식 감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

“불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기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기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기건강비법 약초여행 마기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한 약재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약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공급하게 되었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걷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발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하여 피로를 제거한다.
-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감 대 진 일장